

#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0년 7월 뉴스레터 vol. 33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어느 49재

채우고 비우고 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일까

장례 후기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장례 서비스

메멘토모리 이별의 푸가 외

숫자로 보는 채비 죽음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평가

조합 소식 복합 문화공간 채비 오픈

## 어느 49재



### 래퍼 고태관님을 기리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도 눈이 폭폭 나린다.’

이 구절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 시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 구절은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라는 유명한 시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나에게 이 구절은 백석 시인의 시로서가 아니라 음악으로 기억되어 있다. 가수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제목과 멜로디만 기억나는 노래. 이 노래는 프랑스어로 음유시인이라는 뜻의 ‘트루베르’라는 인디그룹이 백석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이다.

지난 7월 2일 저녁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간 채비’에서는 트루베르의 리더이자 시를 사랑한 래퍼 고태관님의 49재 추모식이 열렸다. 49재라고 해서 종교적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를 사랑했던, 그가 사랑했던 동료 지인들이 모여 추모식을 한 것이다. 젊은 래퍼가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를 추모하는 49재를 열겠다고 해서 우리는 장소를 제공했지만 사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추모식을 준비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노래가 나왔고 그제서야 나는 오늘 추모식의 주인공인 저 래퍼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공간의 관리자가 아니라 그를 추모하는 사람이 되어 추모식을 함께 하게 되었다.

추모식에는 20여명의 지인들이 참석했다. 가까운 서울에서 온 지인들도 있지만 멀리는 동해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참석했다. 윤석정 시인의 사회로 시작된 추모식은 아무런 준비도 형식도 없었다. 처음에 아무 프로그램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의아했다. 추모식을 어떻게 기획해야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족이나 지인을 위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나로서는 당연한 의문이었다.

아무 준비 없이 추모식을 한다니 어색하거나 우왕좌왕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것은 기우였다. 진정한 추모에는 형식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 고인과의 추억과 일화를 이야기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두 시간 내내 웃거나 울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그런 식상한 추모사가 아니었다. 고인과 술마시며 실수했던 이야기, 자신에게 끝까지 예의를 지켜 대했던 고인이 내심 서운했다는 이야기, 힘들 때 위로 받았던 이야기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사랑하는 동료들 먼저 떠나 보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 어떤 추모식이 이보다 훌륭할 수 있을까.

지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고태관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받기보다 주변사람들에게 사랑과 에너지를 한없이 주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픔에는 경중이 없다고 한다. 누구는 조금만 슬프고 누구는 더 많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픔은 똑같은 슬픔이라는 것이다. 유족 없이 지인들만 모여 진행한 이번 추모식에서 그들은 오롯이 고인과의 기억과 추억만으로 슬픔을 위로받고 치유했다.

고인의 활동명은 ‘PTycal’이다. PT는 피터팬을 의미하는데 그 뒤에 뮤지컬의 ‘cal’을 써서 지었다고 한다.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래퍼 고태관은 영원한 소년 ‘피터팬’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 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일까



예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죽음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평소에 자신의 임종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 채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박정희 정권의 반공교육 탓에 전쟁의 공포를 겪고, 20대와 30대 초반까지의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엔 체포와 고문의 공포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살았다. 당시 내게 죽음이란 고문과 의문사, 분신자살 등과 모습이 겹친다.

비극적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주어진 삶을 살게 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이었다. 가장 평온한 일상의 시대. 그러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용산참사와 천안함 사태, 세월호사건 등등...어느 때보다 정치적 참사로 인한 비극적 죽음이 많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분노와 울분도 컸다.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준 문재인 정부지만 3년도 안되어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죽음의 공포가 생활 속에 다시 등장했다.

정치적 원인에 의한 죽음이 아닌 역병에 의한 죽음이라 공포의 성격이 다르긴 하나 죽음의 문제가 내 일상에 다시 들어온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산재사고)과 가난한 이들의 자살, 독거노인들의 외로운 죽음 등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수많은 죽음들도 내게 임종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계기들이다.

인간은 대체로 자연사를 꿈꿀 것 같다. 살던 곳에서 삶의 우애를 나눈 이들 곁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는 임종. 코로나 같은 역병이든, 산재나 교통사고든, 다양한 인재나 자연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어야 비로소 자연사(노화에 따른 병사도 여기에 포함된다)를 맞을 수 있으리라. 이 경우엔 죽음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버티며 살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그러나 만약 예기치 않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임종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답답하고 뭔가 억울함마저 느낄 것 같다.

죽고 나면 의식마저 사라진다고 믿으면 그만이겠지만 겪어보지 못한 죽음이니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매일매일을 언제 죽어도 후회 없을 삶을 살자는 모토로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하루 하루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욕구든 당위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였을까.코로나사태가 터지고 한창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문득 임종에 대한 생각을 시로 써보았다.✽

유종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감사

## 임 종 지 기

죽음이 한걸음 거리에 와 있다.  
잘리고 깨지고 짓이겨지고, 못다 핀 꽃들의 죽음부터  
장례 없이 화장터로 직행하는 역병에 의한 죽음까지

누구도 비켜가지 못할 운명 앞에서 임종을 생각한다.

그저 온전한 모습으로  
한 순간이라도 생을 돌아보고  
떠나는 손 잡아줄 이 곁에 있기를

설령 꿈일지라도

홀로 떠나는 길 미처 눈감지 못한 죽음에  
손을 내밀어  
서로가 서로에게 말없는 임종지기가 되어주기를

나는 소망한다.

\* 임종(臨終)지기:곁에서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





##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장례 서비스



지난 6월 18일에 1년여 동안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저희 부친의 장례식에 바쁘신 가운데 조문해주시고, 조화나 근조기, 문자로 따뜻하게 위로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1940년생으로 동시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사신 선친과 어머니의 큰 덕으로, 그리고 큰아들 노릇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저를 포함한 5남매의 큰 복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는 장례를 사적인 일로 생각해 오고 그동안 애경사를 나누어온 분들 중심으로 황망 중에 부고를 알리다 보니 마땅히 알려야 할 분에게는 알리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 역의 경우도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할 뿐만 아니라 장례식 중에 제가 저지른 적지 않은 결례와 실수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에 큰아들로 장례를 치르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큰 결정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사항들을 종교가 서로 다른 5남매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음식의 결정, 수의와 입관식, 상주복을 포함한 각종 장례물품의 구입, 리무진과 버스 서비스의 구입, 화장장과 묘지의 결정 및 묘지 작업서비스의 구입 등 모두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이 비반복적 서비스의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저의 장례가 발생하자마자 저희에게 달려와 주신 조합의 장례지도사 김윤식 부장님이 처음부터 먼 전남 여수 선영에서의 안장과 안장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돌아와서 밤 10시에 헤어질 때까지 시종일관 같이 해주신 덕분에 정말로 경건하게 고인을 깊이 추모하면서도 화목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구입과정에서는 김윤식 부장님이 지닌 풍부한 정보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정보를 저희와 투명하게 모두 공유하여 저희의 선호에 맞게 맞춤형으로 원가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종 의식에서는 예는 깊게 하면서도 형식은 불교, 기독교, 유교 등을 넘나드는 유연한 방식으로 설명해주시어 종교가 서로 다른 5남매 모두 감동을 받을 정도로 만족하여 세 명의 동생들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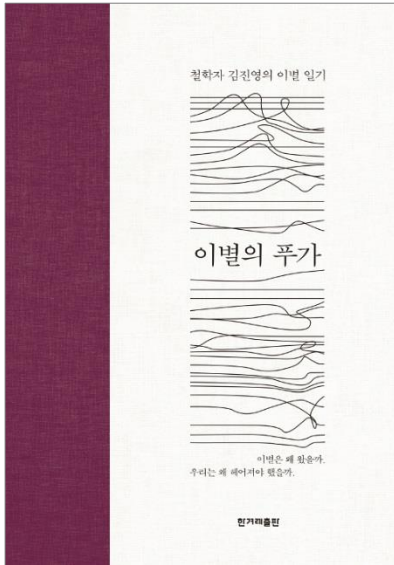
조합에 가입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조합의 가치를 절실히 체험하여 이렇게 공유합니다.

문동환 목사님과 백남기 농민의 장례를 비롯하여 상주의 입장에서 수많은 장례를 지도해주신 베테랑 장례지도사 김윤식 부장님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장례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적극 추천합니다✿

장종익 조합원 |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 이별의 푸가 - 철학자 김진영의 이별 일기

김진영 | 한겨레출판

《이별의 푸가》는 삶 내내 지녀온 ‘이별의 아픔’과 ‘부재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짧은 글 86개로 쓰인 이 단상집은, 마치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생의 모든 이별의 순간을 자신 앞에 작 펼쳐놓고 세어보듯이, 이별할 때 지나야만 하는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쓰다듬는다. 만나고, 후회하고, 추억하고, 침묵하고, 눈물짓고, 분노하고, 미련을 놓지 못하고, 부재함을 느끼고, 비참해하고, 허전해하고, 분열하고, 아파하고, 욕망하고, 기뻐하고, 대수롭지 않아 하고, 유치해하고, 뻔뻔스러워하고, 냄새를 맡고, 목소리를 떠올리는…… 이별의 매 순간은 세세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몸 속으로 스며든다. 거리에서, 차 안에서, 그 사람의 집 앞에서, 준비된 말이나 어떤 포즈도 없이, 이별을 견뎌

내야 했던 어느 한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된다. “이별은 왜 왔을까. 우리는 왜 헤어져야 했을까?” 그 사람이 아닌, 그 이별의 순간을, 그 부재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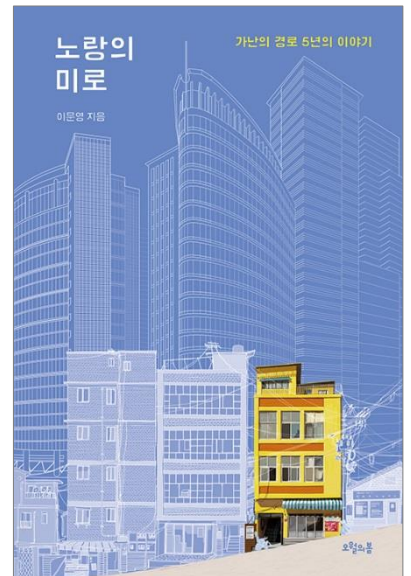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중에서)

## 노랑의 미로 - 가난의 경로 5년의 이야기

이문영 | 오월의봄

노랑의 미로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중 한 곳에서 벌어진 ‘강제퇴거 사건’을 토대로 저술된 책이다. 2015년 2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에서 45개 방마다 노란 딱지가 붙었다. 건물주는 한 달 열흘의 시간을 주고 모두 방을 비우라고 일방 통보했다. 1968년 완공된 그 건물에서는 한 평도 되지 않는 방마다 45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18년을 거주해온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쪽방 건물이면서 45명의 주민이 사는 하나의 마을이 황폐한 철거촌으로 변했다. 방들은 해머에 맞아 깨졌고, 전기와 수도가 끊겼다. 쫓겨나지 않으려 행정기관을 찾아 다니며 호소하던 주민들은 결국 한두 명씩 방을 빼야 했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춥고 캄캄하고 물이 나오지 않는 건물의 부서진 방에서 폐허와 공존했다.

사건 당시로부터 5년이 흘렀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난한 일상은 이어지고 있다. 저자는 <가난의 경로> 연재 종료 뒤 ‘이후 4년’의 변화를 계속 따라가며 시간을 쌓았다. 그 시간의 이야기들을 강제퇴거 1년의 이야기에 보태고 수정해 대부분 다시 썼다. 모두 5년 동안 45명의 이야기를 쫓았다. 5년 뒤 45명 중 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남았다.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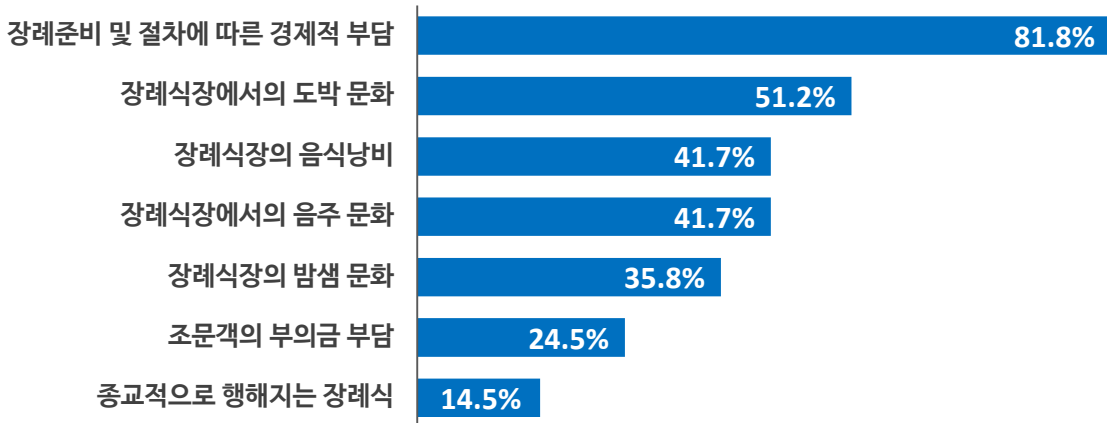




## 1 개선이 필요한 장례 풍습 '장례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개선이 필요하다' 81.8%

- 개선이 필요한 장례풍습 중 가장 높은 것은 '장례준비 및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례식장에서의 도박, 음식낭비, 음주문화, 밤샘문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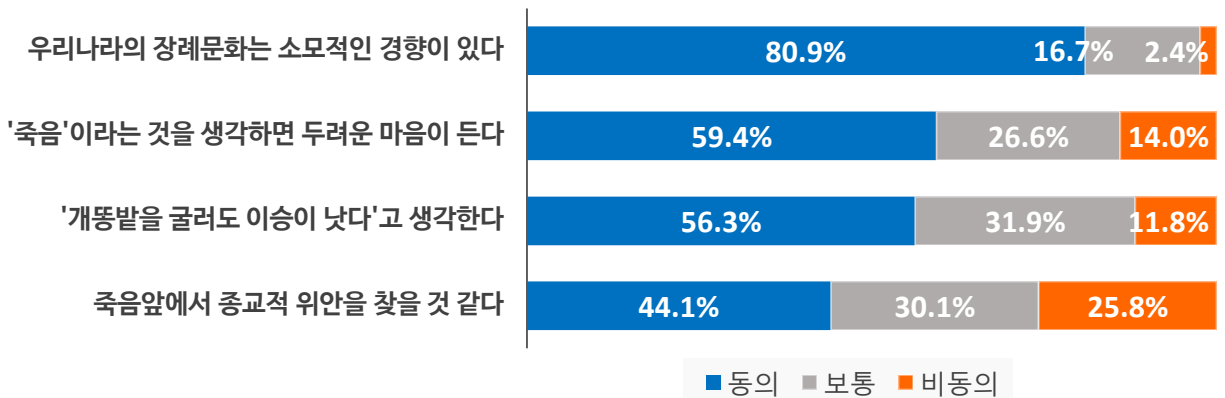
[그림] 개선이 필요한 장례풍습 (1+2+3순위)



## 2 죽음 및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평가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소모적이다' 80.9%

-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소모적인 경향이 있다'는 명제에 대해 8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59.4%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죽음 및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평가



\*자료출처: 상조회사 인식조사. (마이크로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2014)

## 추모형 복합문화공간 채비를 오픈하였습니다

추모와 애도, 위로가 있는 우리 조합만의 혁신적인 장례서비스인 채비 장례와 추모식을 치를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빠르게 치러지는 장례식과 달리 추모하는 시간을 오래 갖고 고인과의 특별한 이별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임은 물론 조합에서 마련하는 채비강좌와 기타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며, 조합원 개인 및 단체 모임을 위한 공간 대여도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함께 조합원님을 만나 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 [충남조합] 녹색장례문화 프로젝트 선진지 견학, 공간 채비 방문

지난 뉴스레터에서 충남 한두레협동조합이 지난해에 이어 제10회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 일환인 '녹색장례문화 프로젝트 선진지 견학' 일정으로 공간 채비에서 추모형 작은장례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견학단 모두 상주의 가족, 지인의 역할로 함께 참여한 가운데 추모식과 열띤 질의응답시간까지 잘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충남지역에 제2의 채비 '공간'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 [강원조합] 하반기 신입조합원 교육

7월 2일 하반기 신입조합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녁식사와 인사나누기, 협동조합과 한두레소개, 강원한두레 활동보고, 새롭게 런칭한 채비 소개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사님들도 격려차 함께해서 풍성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 공간 채비의 첫 행사는 조합원 스터디 모임으로 시작

공간 채비의 페인트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이현섭 조합원이 주재하는 인문학 스터디모임이 6월 30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한겨레두레와 채비, 그리고 인문학은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닐까요. 공간 채비는 이처럼 조합원들의 작고 알찬 모임을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 제1기 예비 상주학교 수강생 모집

## 장례, 어떻게 준비할까?

죽음이란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이승의 일을 두고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정리하고 준비된 이별을 한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혹여, 이런 일들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 있는 이 순간 나와 가족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비학교 강좌를 통해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죽음과 장례를 이해하고, 임종에 임박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 취지

- 장례를 이해하고 잘 준비할 수 있다
- 내가 원하는 장례를 계획할 수 있다

## ■ 개요

- 대상: 장례가 임박한 분, 미리 장례를 준비할 분, 장례 관련 상담이 필요한 분 등
- 참가비: 조합원(무료), 비조합원(1만원)
- 신청: 1800-9517, 02)722-9517 (15명 선착순 마감)
- 일정: 2020년 7월 31일(금) 오후 2~6시
- 교육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 프로그램

차시	주제	강사
1	①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소개와 사회적 가치 ② 상조시장의 현황과 이해	김상현
2	① 현대식 장례절차와 장법 ② 사전준비와 사후에 정리할 일들	박태호
3	① 채비장례란 ② 추모식과 장례 진행 과정 이해	박태호
4	① 장례 전 할 수 있는 일들의 중요성 ② 부모(가족)와 추억 만들기, 가족사 쓰기 등	김상현

## ■ 강사소개

## 김 상 현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25년간 대기업,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우리 사회가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경영지식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박 태 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대표 장례지도사.

10년 동안 장례지도사로 살며 죽음은 삶의 과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죽음의 풍경은 익숙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다. 철학을 가진 장례지도사를 꿈꾸며 현재 동국대에서 생사학 석사과정을 전공 중이다

##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설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기는 매월 15~25%의 전기요금을 절약해 주며, 20년간 제품수명을 보장합니다.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제품(한화 325W 모듈, LG인버터)만 사용하며, 간단한 시공(30분)으로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모집대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서울·경기 소재)
- 서울시 지원 금액: 44만원(서울시 보조금 39만원 + 구청보조금 5만원)
- 자부담: 조합원 부담금 5만9천원(2020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솔라테라스 <https://www.solarterrace.net>  
(2018, 2019년 연속 서울시 시공 1위, 전국 실적 1위 업체)
- 신청 및 문의: 1566-3221
- A/S: 설치 후 5년(양도와 이전 가능)



① 태양광발전기 설치 준비



② 모듈 조립



③ 인버터 연결



④ 발전기 베란다로 이동



⑤ 베란다에 튼튼하게 고정



⑥ 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

\* 솔라테라스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업무협약기관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장례지원사업에 후원합니다.



## 6월

임영미 조합원 모친상  
성경아 조합원 매씨상  
오명철 조합원 모친상  
오상석 조합원 부친상  
엄홍기 조합원 모친상

백명기 조합원 배우자상  
이용규 조합원 빙부상  
신남희 조합원 모친상  
이영주 조합원 모친상

권월선 조합원 시모상  
장종익 조합원 부친상  
김윤기 조합원 부친상  
전부영 조합원 부친상

## 5월

이선재 조합원 모친상  
진원섭 조합원 부친상  
이형철 조합원 빙부상  
이광중 조합원 부친상  
황보연 조합원 시부상

홍성건 조합원 모친상  
박흥섭 조합원 모친상  
이종한 조합원 모친상  
송재은 조합원 모친상  
윤승일 조합원 부친상

이진형 조합원 부친상  
유대환 조합원 빙모상  
김영수 조합원 부친상  
박종석 조합원 모친상

## 4월

인미숙 조합원 시모상  
이기석 조합원 부친상  
이주원 조합원 모친상  
박문식 조합원 처남상  
차한영 조합원 모친상

송영섭 조합원 빙모상  
정구일 조합원 부친상  
최영숙 조합원 시부상  
김성재 조합원 모친상  
진현경 조합원 누이상

정효은 조합원 모친상  
전문성 조합원 모친상  
최 병 조합원 부친상  
권정은 조합원 시모상  
김대훈 조합원 지인상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